



위성미 “이번엔 꼭 상금 타고 말거야”

위성미가 22일 일본 고치현 구로시오골프장에서 열린 일본남자프로골프 카시 오월드 오픈 프로입대회 17번홀 러프에서 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올 상금 4억 고지 넘겠다”

상금 3억6천만원 확보한 신지애

내일 ADT CAPS 챔피언십 출전

‘슈퍼루키’ 신지애(18·하이마트·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사상 처음으로 시즌 상금 4억원 돌파에 도전한다.

올해 14개 대회에서 3억6천여만원의 상금을 모은 신지애는 24일부터 사흘 간 제주 서귀포의 스카이힐제주골프장(파72·6천303야드)에서 열리는 ADT CAPS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에는 총 상금 3억원에 우승상금 6천만원이 걸려 있어 신지애가 우승하면 시즌 상금이 4억원을 넘어지게 된다.

또한 신지애는 이미 상금왕과 대상, 신인왕을 확정지었지만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1996년 박세리(29·CJ) 이후 10년 만에 시즌 4승 고지를 밟으며 다승왕도 차지하게 된다.

지난 19일 중국에서 끝난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픈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한 신지애는 이 기세를 몰아 2연승까지 넘보고 있다.

신지애는 또 올 시즌 치른 44라운드에서 평균 타수 69.57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12오버파 이내 타수만 스코어카드에 적어 낸다면 KLPGA 사상 처음으로 시즌 평

균 60대 타수를 달성한다. 하지만 신지애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출전하는 선수들의 면모도 만만치 않다.

개막전인 휘닉스파크 클래식과 8월 열린 레이크힐스 클래식 우승 이후 잠잠했던 박희영(19·이수건설)이 자존심 회복을 선언했고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신데렐라로 떠오른 홍진주(23·이동수패션)도 도전장을 던졌다.

여기다 강수연(30·삼성전자), 김주미(22·하이마트), 문수영(22), 이지연(25) 등 미국무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참가해 신지애의 견제 세력으로 떠올랐다.

한편 정규투어 마지막을 장식할 이번 대회는 프로 선수 61명과 아마추어 선수 1명 등 모두 62명이 출전해 컷오프 없이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타이거 우즈가 22일 하와이에서 열린 PGA 그랜드슬램 1라운드 16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왕중왕전 첫 날 | 1위 짐 퓨릭 (67타) · 2위 오길비 (68타) 3위 우즈 (70타) · 4위 위어 (71타)

아시아 원정길에서 두차례 2위에 그친 타이거 우즈(미국)가 메이저대회 우승자 4명만 추려 치르는 미국프로골프(PGA) ‘왕중왕전’인 그랜드슬램 첫날 3위에 그쳤다.

우즈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포이푸비치의 포이푸베이 골프장(파72·7천8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명 가운데 3위에 머물렀다.

선두는 5언더파 67타를 친 짐 퓨릭(미국).

올해 US오픈을 제패한 조프 오길비(호주)가 퓨릭에 1타 뒤진 4언더파 68타로 2위를 달렸고, 마이크 위어(캐나다)는 1언더파 71타로 꼴찌로 처졌다.

이 대회에 7번 출전해 6차례나 우승했던 우즈는 2000년 비제이 싱(피지)을 상대로 2타차 역전 우승을 거뒀고, 이듬해에는 첫날 레티프 구센(남아공)에게 1타 뒤졌지만 2라운드에서 7타를 줄여 뒤집기에 성공한 적이 있다.

일본프로골프투어 던롭피닉스투너먼트에서 고장난 드라이버 때문에 우승을 놓쳤던 우즈는 이날도 드라이버 티샷이 불안했고 버디 5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3개에 발목이 잡혔다.

우즈가 출전하지 않았던 2003년에 이 대회 우승컵을 안았던 퓨릭은 보기없이 5개의 버디를 골라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쳐 3년만에 정상 복귀를 노리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年 30회 동반자 전원 그린피 면제 혜택 담양 다이너스티 ‘통합 VIP 회원’ 모집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코스설계와 최상급 제니스 양잔디의 고품격 프리미엄 골프장인 대주그룹 담양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파 72·6천384m)이 국내최초의 ‘통합 VIP 창립회원’을 모집한다.

통합 VIP회원은 담양다이너스티는 물론 대주그룹 계열 골프장인 수도권의 동두천과 안성다이너스티, 지방의 함평, 장흥, 칠곡, 대덕, 장성, 나주 다이너스티 등 9개 골프장의 그린피가 면제되며 1년에 30차례까지 동반자도 전원 9개 골프장에서 무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입회금은 5억5천만원이며 프리부킹이다.

연계형 VIP회원은 담양을 비롯 9개 골프장의 그린피가 면제되고 동반자 전원이 9개 골프장 그린피 회원대우(연30회)를 받는다. 입회금은 2억8천만원이며 주말회 부킹이 보장된다.

통합형과 연계형 회원 모두 1년 30회 초과시에는 동두천과 안성에서는 본인의 1인 회원대우, 지정인 회원대우가 주어지고, 함평·장흥·칠곡·대덕·장성·나주

골프텔·콘도미니엄 객실 2개 무료 사용 가능

구분	VIP회원 - 통합형(30구좌)	VIP회원 - 연계형(70구좌)
입회금액	5억5천만원	2억 8천만원
부킹보장	프리 부킹	주말 4회
그린피	면제	면제
년간(30회)	동반자 전원 그린피 면제	동반자 전원 그린피 회원대우
골프텔	대주그룹 관계사 소유 전국 골프텔 및 콘도 무료이용	
대주그룹 소유골프장 (예정포함 - 9곳)	수도권 : 동두천/안성다이너스티 - 2군데 지 방 : 담양/함평/장흥/칠곡/대덕/장성/나주다이너스티 - 7군데	

※ 대주 그룹 소유 골프장(예정포함 9곳) 상기조건으로 모두 이용

다이너스티CC에서는 본인 외 2명 회원대우, 지정인 회원대우 등 다양한 특권이 제공된다.

또 담양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의 스위트 룸과 로얄 침실을 갖춘 골프텔을 비롯해 나머지 계열골프장에 딸린 골프텔 또는 콘도미니엄의 객실 2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007년 그랜드 오픈 예정인 담양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은 세계적인 골프장 설계가인 로널드 프림이 디자인

해 뛰어난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코스가 매력적이며 온난성 분지형에 세계적 라운딩이 가능하다.

페이웨이를 수송고 있는 잔디도 호남 최초로 녹색 유지 기간이 보통 잔디보다 한달 가량 긴 최고급 품종인 ‘제니스’를 심었다. 호남고속도로 담양 IC에서 5분, 광주시내에서 1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큰 특징이다.

문의 ☎02-545-6949, 062-226-5801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